

현대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오늘 견본주택 오픈

편리한 교통·빠어난 교육·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삼박자'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금호건설)은 전주시의 전통명문 주거지인 효자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견본주택을 11월 1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일원(효자구역 주택재개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7층, 17개동 총 1,248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9~101㎡ 90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정비사업이지만 일반분양 비율이 72.5%에 달해 로열 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367가구 ▲70㎡ 130가구 ▲78㎡A 78가구 ▲78㎡B 120가구 ▲78㎡C 160가구 ▲84㎡A 212가구 ▲84㎡B 146가구 ▲101㎡A 231가구 등으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선보인다.

▲주거 선호도 높은 전통명문 주거지 효자동의 새 아파트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가 들어서는 전주시 효자동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 시장에서 강조되는 인프라를 두루 갖춘 곳이다.

우선 단지 앞에 전주시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인 백제대로가 위치해 전주 시내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 전주역 접근도 용이하다. 지하철이 없어 지역 내 주된 교통수단인 버스 이용도 수월하다. 특히 전주 시내권역을 연결하는 최다 버스 노선(약 64개)이 경유하는 정류장이 단지 앞에 위치한다.

빠어난 교육 환경도 돋보인다. 명문 자율형사립학교인 상산고가 인근에 자리하며 화산초, 효정중, 전주상업정보고 등 여러 초·중·고가 도보 거리다. 아울러 전주내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서산동이 가깝고 효자동내 여러 학원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도 근거리에서 위치한다. 상업지 주변에 홈플러스(전주 효자), CGV(전주 효자), 효자몰, 완산구청, 우체국, 주민센터 등이 자리하며, 백제대로를 따라 롯데백화점(전주점), 아파트(전주점), 전주종합경기

장, 전북대 병원 등 대형 상업,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사업지에서 전북도청 등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서부 신시가지까지도 차로 10여분 거리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췄다. 효자공원, 산너머공원, 완산공원 등이 주변에 있으며, 남저북고형의 단지배치로 빠어난 조망권을 갖췄으며, 일부 가구는 모악산 조망도 가능하다.

▲검증된 힐스테이트 브랜드 특화 설계 선보여

1군 브랜드 건설사 컨소시엄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설계도 도입된다. 전 세대를 남측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거실에는 2.45m(1층은 2.75m) 우물형 천장고로 설계해 공간감을 높였다.

또한 전용면적 78㎡ 일부 타입과 전용면적 84·101㎡ 전 타입에 4베이(BAY)·4룸(ROOM) 설계를 선보이며, 타입별로 대형 드레스룸, 가벽형 벽체, 광폭 주방 등을 구성해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주차장은 지하화 했으며, 지상에는 잔디광장, 수경공간, 순환 산책로 등의 다채로운 조경·휴식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홈 IoT 시

스템 '하이오티(Hi-oT)' 기술도 적용돼 스마트폰으로 조명 및 난방 제어, 에너지 사용량 조회, 택배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등이 가능하다.

다양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도 돋보인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맘스카페, 키즈놀이터 등 여가·학습 공간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입주민 편의시설도 관심을 끈다.

▲노후 아파트 많아 새집 수요 탄탄... 대단지 프리미엄도 기대

우수한 미래가치를 갖춘 점도 소비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효자동 일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주시의 신(新) 주거타운 형성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와 접한 효동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삼천봉동 등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계획 중이다. 또한 지역 내 택지 개발도 마무리 단계 일대 정비사업이 더욱 각광 받는 분위기다.

효자동 내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 새집 갈아타기 수요도 탄탄하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효자동은 작년까지 총 2억3,344가구가 준공됐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조감도

전 세대 남측향 위주 배치·단지 내 시설도 돋보여

노후 공동주택이 많아 새집 갈아타기 수요 '탄탄'

만, 2009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1만8,680가구로 입주 10년차 아파트 비율이 80.0%에 달한다.

특히 지방일수록 새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은 7월 말 기준 입주 2년내 전국 새 아파트 630개 단지의 3.3㎡당 매매가는 1512만원으로,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1203만원)보다 25.7%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은 새집이 해당지역 평균(746만원)보다 무려 46%(344만원) 비싼 1090만원을 기록해 새 아파트 선호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248가구 대단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부동산114

에 따르면 작년 전국 1000~1499가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1%에 달해 700~999가구 7.5%, 500~699가구 7.4% 등 규모가 작은 단지의 가격 상승폭을 웃돌았다. 특히 사업지와 약 2km 떨어진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1,390가구)' 전용면적 84㎡ 타입 분양권이 9월 3억4325만원(국토부 실거래가)에 거래돼 분양가(2억9840만원) 대비 4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어, 이번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도 높은 프리미엄 형성 기대감이 높다.

▲청약·전매 제한·대출 등 상대적 규제 적어... 전매제한 없고 주택제 물량도 있어 유주택자도 당

침확률 높아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가 들어서는 전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및 중도금 대출 보증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먼저 세대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 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200만원(전용면적 85㎡이하) 또는 300만원(전타입) 이상 납입인정 금액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이후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

가점이 부족한 경우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순위 청약지역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가르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청약 일정은 11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13일 청약 당첨자 발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당첨자 계약이 진행 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그 동안 전주시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많았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원도심에는 신규 브랜드 아파트가 적었던 만큼 이번 분양에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설계와 상품을 선보여,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 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3-2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2년 6월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호남지방통계청-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조사 개발

호남지방통계청과 완주군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청소년 미래세대 육성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통계 개발을 지난달 31일 공표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는 미래세대의 주역이자 군정이 지향하는 아동·청소년들의 현재 상황과 의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통계로,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개발됐다.

동 통계는 완주군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약 2500명을 대상으로 가족/친구관계 등 총 10개 부문 4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청소년연구원, 사회복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표를 구성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기업 창구 운영

NH농협은행 전북본부(김장근 본부장)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용상담창구는 농협은행 전북영업부·군산지부·나운센터지점 등 군산지역 소재의 6개 영업점에 각각 설치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은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분양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토지 분양중도금 및 감점가의 최대 100%까지 지원되는 NH산업단지대출 등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9월 27일 새만금개발청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새만금사업을 전북 본부의 중장기발전과제로 선정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새만금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에서 발효식품 비즈니스 향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

전 세계 발효식품의 비즈니스 향연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지난달 3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장 서막을 열었다.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세계 24개국의 기업인과 바이어, 대사관 상무관을 비롯해 국내외 방송매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과 세계의 발효식품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로 17회를 맞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 세계 발효기업과 바이어, 소비자가 모두 모이는 비즈니스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발효식품 메카로 전복의 위상을 높여왔다”면서 “농생명·농식품산업을 미래 전

락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식품산업과 세계 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세계 24개국의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여 오는 4일까지 5일간 생생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 바이어로 참가하는 연 매출 2조원의 루마니아 대형 유통사 CARREFOUR ROMANIA사의 ION IONESCU 총괄 바이어는 “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 질 좋고 우수한 한국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 한국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 향후 거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기업관에 전시업체로 참여하는

러시아 Imperia사의 Bozhok Dmitrii 이사는 “발효엑스포가 기존 식품전시회와는 다르게 바이어 거래 외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가하게 되었다.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며, 말레이시아 Bionaturecare Marketing Bhd Sdn's의 Neo Bon Sen 대표는 “지난해 참가했던 기업들로부터 참가객도 많고 매우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참가하게 되었다. 많은 바이어들과 한국소비자들을 만나게 되어 설렌다.”라고 말했다.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개막식을 필두로 첫날 B2B 무역상담회를 비롯해 오는 11월 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 24개 시군 확대 제공

농진청,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2027년까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오늘부터 24개 시·군으로 확대 제공한다.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동네예보,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농장의 고도, 지형, 도심과의 거리 등을 반영한 농장 단위 상세 기상과 재해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대상 지역 농가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농장기상', '농장재해', '대응조치'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농장에서 재배 중인 작물의 품종과 생육단계에 맞춰 주의, 경보 등 위험 단계별로 상황을 알려주고, 단계에

맞춰 오늘 익산에서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현장전시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는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 개선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장은숙 과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해 조기경보서비스가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군들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복합지형으로 좁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며, 여러 작물이 어우러져 재배되고 있어 기후 관련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큰 곳이다. 농촌진흥청은 시스템 확대 제공에

11월 도내 중기 경기전망지수 87.3p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전북 중소기업회장 두완정)가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I)는 87.3으로 이는 전북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제조업의 수출 및 제조업의 경우 2019년 11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7.6p 상승하였으나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8.1p 하락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이중 건설업은 전월보다 8.1p 상승,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10.0p 하락하였다.

내수판매(87.0→85.7), 수출(96.9→104.5), 영업이익(84.3→82.9), 자금사정(82.3→87.3) 전망에서 수출 및 자금사정에는 상승하였고 내수판매 및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했다. 연계열인 고용수준(95.7→97.2) 전망은 다소 증가했으나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여로 (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83.3%), '인건비 상승'(18.3%)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올 3분기 순이익 3091억원 시현

JB금융그룹

JB금융지주(175330, 회장 김기홍)는 2019년 3분기 연결 누적기준 3,091억원(지배지분 2,9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8.2%(지배지분 39.5%) 증가한 실적으로, 3분기 중 및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다. 계열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그룹의 균형 있는 수익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로 인한 금리인하 기조 등 어려운 금융환경 하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및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 정책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또한, 자산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경기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수적인 총담금 적립정책을 시행하여 총담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등 경기둔화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룹의 자회사인 전북은행(별도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9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그룹의 이익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광주은행(별도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2% 소폭 감소한 1,39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이어갔다. JB우리카피탈(연결기준) 또한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6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는 지배주요 ROE 11.8% 및 그룹 연결 ROA 0.88%의 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했고,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자여신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09%p 개선된 83%, 연체율은 전년동기대비 0.18%p 개선된 0.75%를 달성했다. 대손비용율(그룹 기준) 역시 전년동기대비 0.05%p 개선된 0.38%를 기록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